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	보 도 자 료 (배포) 2020.2.12.(수)
즉시 사용		
총괄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국무총리실 상황실	과장 노혜원, 사무관 이승훈 (044-200-2293, 2295)
	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	과장 손영래, 사무관 김민주 (044-202-3803, 3808)
행사지침	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	과장 손영래, 사무관 조영대 (044-202-3803, 3805)
우한국민 이송	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	과장 박재락, 서기관 김광룡 (02-2100-7581, 7582)
	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	과장 홍종완, 사무관 양기현 (044-205-5250, 5251)
특별입국 절차	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	과장 배경택, 사무관 송정아 (044-202-3739, 3737)
자가진단 앱	중앙사고수습본부 시스템구축지원팀	과장 임근찬, 사무관 윤종현 (044-202-3840, 3166)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

- 제3차 우한 국민 이송현황, 행사 등 개최 지침, 자가진단 앱 개발 등 -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(보건복지부 장관)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▲ 3차 우한 국민 이송 준비사항, ▲행사·축제·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 지침 ▲혈액수급 방안 ▲특별 입국절차 및 자가관리 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1 3차 이송 진행상황
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국민 이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
- 어제 밤(2월11일) 8시39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오늘 아침(2월 12일) 6시23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임시항공편은, 우리 국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외국인 147명을 이송하였다

- 우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▲중국 출국 전 중국 당국의 검역을 거친 후, ▲탑승 전, ▲국내 입국 시 3차례에 걸쳐 검역을 거쳤다. 탑승 전(1명)과 국내 검역 과정(4명)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유증상자 5명 및 그 자녀 2명(11세, 15개월)은 국립중앙 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, 증상이 없는 분들(140명)만 14일간 임시 생활시설인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.
- 또한, 7개 부처 정부합동지원단은 우한 국민 등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하여 이동차량 45대 등을 투입하고, 우한 국민의 입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어학원에 대해 생활물품 준비 및 방역 관리 등을 조치하였다.

* 버스 21대, 에스코트 24대
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귀국 하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입국한 우한에서 귀국한 국민들의 이송·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* 3차 우한 국민이 들어오게 될 국방어학원은 군 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 등이 제한됨

** 한국기자협회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위한 “<가제> 감염병 보도 권고기준” 준비 중
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,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사개최 시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,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.
- 이 권고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.
- 또한, 주최기관에게 ▲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, ▲참가자가 밀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, ▲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, ▲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.

< 주요 내용 >

- ▶ 행사 기간, 인원, 등록 여부, 밀집도 등을 고려한 대응계획 수립
- ▶ 참여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

< 사전 안내문 >

- 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참여하지 않을 것
-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

- ▶ 행사 장소 내 비누,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
- ▶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하여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
 - * 시험 등의 경우 외국 방문자 등 별도 공간 구분, 교통편 분리 등
- ▶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
 - * 참가자 분산을 위한 시간 조정, 교통편 증대 등

- 아울러,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는 정부·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운영지침을 배포·시행하였다.

- 정부·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도, 경제 활성화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.

-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된다. 현재는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중이나,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되어 있었다.

* 특별입국절차 :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,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
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“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의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이를 포함하게 되었다”고 밝혔다.

* 환자 발생 현황 : (홍콩) 확진 49명, 사망 1명, (마카오) 확진 10명, 완치 1명

- 한편, 2월 11일 화요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·여객 총 76편 기준, 총 3,355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다.

-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2월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·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‘자가진단 앱(App)’을 설치하도록 하여 입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

-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매일 1회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.

- 이 앱에서 **1개 이상의 증상**을 선택한 경우,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우선 안내하여 **자발적인 상담을 유도**한다.
- 이를 연속 의심 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**입국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연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를 확인**하는 등 보다 **집중적인 사후관리**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또한, 이 앱은 선별 진료소 연락처, **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**도 연결되어 있어, 감염증 의심증상 등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**조기 대처**를 지원한다.
- 이 앱은 오늘 12일부터 **공항·항만의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**에 적힌 **URL과 QR코드**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.

4 혈액 수급 방안 및 헌혈 독려

-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공공기관 및 단체, 개인 등에 대한 헌혈 독려를 요청했다.
- 2월은 설연휴, 방학 등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 시기인데다가,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단체헌혈이 취소되고, 사람들이 외출을 기피함에 따라 개인헌혈도 감소 중이라고 발표했다.
- 2월 중에는 지금까지 학교 1,150명, 공공기관 1,860명, 군부대 8,650명, 일반단체 3,760명 등 **15,420명이 단체헌혈을 취소**했고, 혈액보유량도 평균 약 3일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적 기준인 약 5일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. 또한, 향후 수급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수술 연기 등 진료문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.
- * 2.3일(3.3일분) → 2.6일(3.0일분) → 2.9일(3.7일분) → 2.10일(3.6일분)
- 이에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(보건복지부 차관)은 **대한적십자사가 직원들의 체온측정,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강화**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,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**헌혈에 적극 동참**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"고 말했다.

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

- 아울러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(보건복지부 차관)은 오늘 세계보건기구(WHO)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"**씨오브이아이다-일구(COVID-19)**"로 정했다고 밝혔다. 씨오(CO)는 코로나, 브이아이(VI)는 바이러스 디(D)는 질환,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.
- 김부분부장은 세계보건기구(WHO)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▲지리적 위치, 동물,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▲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▲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,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·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.
- 김부분부장은 "다만,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, **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'코로나19(일구)'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**하기로 하였다"고 하였다.

- < 붙임 >
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 2. '여행력 알리기'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 3. 감염병 예방수칙
 4. 자가격리 대상자,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

질병관리본부
KCDC

해외감염병
NOW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

감염병 예방 수칙

손바닥, 손톱 밑
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!

기침할 땐
옷소매로 가리기!

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
반드시 마스크 착용
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

선별진료소* (의료기관) 방문 시
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
*선별진료소 안내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
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+120, 1339 문의

감염병이 의심될 땐
관할보건소 또는 1339,
지역번호+120 상담

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

동물 접촉 금지

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

발열, 호흡기증상자 (기침, 인후통 등)
접촉 금지

·기침시 마스크 착용
·손씻기, 기침예절 등
개인위생 수칙 준수

·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
·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,
지역번호+120 상담

*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: [해외감염병 NOW](#) 에서!

발행일 : 2020.1.29

질병관리본부
KCDC

해외감염병
NOW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

주요증상

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
기침, 인후통 등

위험요인

중국 방문 후
증상 발현

중국방문객은

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
반드시 마스크 착용
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

동물
접촉 금지

발열, 호흡기증상자와의
기침, 인후통 등
접촉 금지

흐르는 물에
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,
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

중국방문후, 증상*발생시

*주요증상: 폐렴,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
관할보건소 또는 1339,
지역번호+120 상담하기

마스크 착용*하기
*특히 외출,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

선별진료소* (의료기관) 방문 시
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
*선별진료소 안내:
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
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문의

게시일 : 2020.1.29

당신의 여행력
모두의 행복을 위해 **당당히**
말해주세요!

해외여행 후,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
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
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.

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!!!



* 해외여행력이란?
여행, 출장 등의 목적으로
해외를 방문한 경험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.hira.or.kr

해외감염병NOW www.해외감염병now.kr

비누로 꼼꼼하게
30초 이상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기침할 때 옷소매로
입과 코를 가리고!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.

질병관리본부 KCDC
2020.2.4.

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

-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**
-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**
 -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
 - 식사는 혼자서 하기
 -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(공용으로 사용 시,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)
-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**
-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**
 - 불가피할 경우,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 사용하기**
 -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 - 식기류 등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
- 건강수칙 지키기**
 - 손씻기,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
 -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
 -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, 기침 후 손씻기·손소독 하기

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가모니터링 방법

-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
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
-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, 감염 증상 알려주기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

- 발열(37.5℃ 이상)
-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- 폐렴

질병관리본부 KCDC
2020.2.4.

자가격리대상자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
-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**
 - 특히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!
 - 외부인 방문 제한
-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**
-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**
-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**
-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 구분하여 사용하기**
 -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 -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
- 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**
-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**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

- 발열(37.5℃ 이상)
-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- 폐렴